

S-Oil, 조양호 한진희장 이사 등재

자사주 28.4% 인수로 본격 경영참여 ... 이사 Aramco 7명에 한진 5명

S-Oil은 3월28일 주주총회를 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최종 확정했다.

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등재는 한진이 S-Oil 자사주 28.4%를 인수한 데 따른 경영참여의 일환으로 해석된다.

S-Oil은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내이사로 장경환 대한항공 경영전략본부장을 확정하고, 사외이사로 장성택 인하대 교수와 한상호 대한변협 기획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한편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로는 A.M. 알세플란 전 Saudi Aramco 부사장과 정문수 인하대 교수를 각각 확정했다.

이에 따라 S-Oil 이사진은 종전 사내 6명, 사외이사 8명 등 14명에서 사내 5명, 사외 7명 등 12명으로 줄었으며, 대주주인 Saudi Aramco와 한진그룹 이사 구성비는 7명(사내 3명에 사외 4명) 대 5명으로 정리됐다.

S-Oil은 한진과의 주식매매 계약에 따른 매각대금 지급과 주식 양도가 늦어도 5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신규임원 선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.

S-Oil은 3월28일 주주총회에서 매출 14조5559억원, 영업이익 9257억원, 순이익 7586억원 등 2006년 경영실적 보고를 통과시켰으며, 2006년 실적기준 배당을 보통주와 우선주 기준으로 각각 주당 2875원, 2900원으로 확정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3/28>